

#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43조 경제효과”

## “33만명 일자리 창출 ... 조속 착공해야”

###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분석

전남과 제주 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 서울과 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43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9일 배포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시 생산유발 36조6000억원, 임금유발 6조5000억원 등 모두 43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33만명으로 전망했다. 전남에서만 생산유발 효과 12조3990억원, 임금유발 효과 1조7937억원 등 모두 14조1927억원의 경제효과와 8만265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사업 기대 효과 중 전남지역에서 생산유발 효과 33.9%, 임금유발 효과 27.6%, 고용유발 효과 25%가 발생하는 셈이다. 제주의 경우 생산유발 9조9959억원(전체 생산유발 효과의 27.3%), 임금유발 2조8700억원(전체 임금유발 효과의 44.1%)

등 모두 12조8659억원(전체 경제효과 30%)의 경제효과와 9만4778명(전체 고용유발 효과의 28.6%)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측됐다.

건설사업 후 수도권~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66.7%, 항공 33.2%, 선박 0.1%로 전망됐다. 전국~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54.5%, 항공 41.5%, 선박 4.0% 순으로 예측됐다.

현재 수도권~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은 항공 99.5%, 선박 0.5%고, 전국~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은 항공 95.3%, 선박 4.7%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폭설에 따른 결항으로 7만명, 올 2월 강풍으로 인한 결항

으로 4만6000명의 발이 묶였다”며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해저터널 건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제주 KTX건설사업은 무안공항에서 제주까지 180km 구간을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로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8조원이 투입된다.

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남도의 숙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제주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던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시 중지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광주시 내년말까지 영구임대주택 1200세대 공급

광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말까지 영구임대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 현장 3곳 중 지난 7월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준공에 이어 이달 중순께 농성동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추진중인 농성동 영구임대주택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498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성동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시설도 1호선 돌고개역에 위치해 도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서민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시가 지난 2012년부터 도시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

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800억원을 포함해 총 940억원을 투입, 하남2지구와 농성동, 주월동 등 3개 현장에서 추진중이다. 주월동 건설공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414세대는 지난 7월 준공과 분양을 거쳐 이달부터 입주할 예정이며, 농성동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은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서민 주거지원형 복지모델인 ‘영구임대주택 1200호 공급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공사중인 주월동 현장의 288세대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 재미맛집’ 호응

### 62개 업소 신청

먹을수록 구미가 당기는 ‘광주 재미맛집’ 신청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재미맛집’은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방송매체, SNS 등에 광주 재미맛집 모집을 홍보, SNS는 조회수가 2만여 명이 넘었고, 지난 9월14일부터 29일까지 62개 업소가 신청했다.

시는 선정된 ‘광주 재미맛집’이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맛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음식 컨설팅과 홍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재미맛집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식당환경개선 등 음식점 명소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영입신고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서식은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전자메일 방법 중에서 선택해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택 오산기지 대공 감시 레이더 가동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대공 감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좋은 일자리’ 전국 2.7% 불과 ... 여수 등 동부권 절반 편중

###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의 ‘좋은 일자리’가 전국의 3%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그나마도 절반 가까이 동부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선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전남 좋은 일자리 현주소와 대응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전남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19만 6785명으로 전국의 2.7%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의 인구 비중(3.7%)과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점유율은 서울(27.8%), 경기(22.6%)가 절반을 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전남 전체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2%로 전국 평균(39.4%)

보다 낮았다.

전남 내에서도 대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동부권 시 지역 편중 현상을 보였다. 여수(19.7%), 광양(14.5%), 순천(12.2%) 등 동부권 3개 시에 절반 가까이 분포했으며

군 단위 지역에서는 영암(6.6%), 무안(3.5%), 화순(3.2%) 등이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27.3%), 50대(25.

9%), 20대(1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9.8%, 여성이 20.2%로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 연구위원은 전남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금속소재 등 산업, 고부가가치 6차 산업, 미래형 농수산업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분석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활용해 보수(중위 임금 이상), 고용 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등 지표를 반영해 이뤄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무장애 버스정류장 20곳 시범 설치

###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광주시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을 올해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차고지 기·종점 식당의 질을 개선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광주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 20여 개소를 올해 시범 설치하고 2021년까지 5년간 10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장소를 선정하는 등 장애인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과 이동권 확대 차원에서 점자노선 안내 책자 1000부를 발행해 시각장애인 단체, 점자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손쉽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저상버스 승하차를 예약하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8월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운전자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건강관리실태, 근로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 새 천년 도약 꿈꾼다

### 전남도 기념식·심포지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새 천년 도약을 기원하는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도·전북도가 함께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다양한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전주 일원 강남도와 나주 일원 해양도를 합치고, 전주와 나주 첫 글자를 따 전라도라 부르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에서 D-1년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이라는 주

제로 전라도 10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는 3개 시·도지사, 지역민,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립국악단은 10월 한 달간 순천·담양·강진·무안을 순회하며 특별공연 연다. ‘악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를 주제로 전통춤, 노래, 특수효과와 영상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전라도 1000년을 상징하는 슬로건과 엠블럼도 전 국민 공모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선포식을 하고 부산, 대구, 강원, 제주 등에서 순회 홍보활동을 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2017

10.13.~10.29. 장성군 황룡강 일원

개막식 10.13 (18:00) 장성공설운동장

쿠폰을 구매 하셔서 할인권 6매, 시식권 1매, 할인혜택 받으시고, 칼라TV 당첨의 행운을 잡아 보세요!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옐로우 시티 Yellow City

장성군

## 계기회 백양 단풍축제

2017.10.27~10.29

장성 백암산·백양사 일원

군민노래자랑 10.26 (18:00) 공설운동장

결구름 “엘리스” 등 초청가수 출연

주최 및 주관 | Jeongsong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